

2026. 2. 20

해외동향부 (제 7386)

■ 주요 뉴스: 美 트럼프, 이란과 합의 불발 시 나쁜 일 발생 주간 신규실업급여는 감소 지속

- 미국 지역 연은 총재, 연준의 독립성 강조 옵션 투자자들은 조기 금리인하 기대
- 미국 블루아울캐피탈, 일부 상품 환매를 중단. 환매 신청 급증 등에 기인
- 유로존 2월 소비자신뢰, 전월비 개선 영란은행 맨 위원은 금리인하에 신중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이란과의 긴장 고조, AI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3%], 달러화 강세[+0.1%], 금리 하락[-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이란발 지정학적 불안 심화, 기술주 매도 증가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일부 기업(Airbus, Reno 등) 실적 부진 등으로 0.5%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주간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노동시장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1%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주가 하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반영
독일은 유로존 2월 소비자신뢰의 개선 등으로 강보합 마감

※ 뉴욕 1M NDF 증가 1448.4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49.8원, 0.29% 상승). 한국 CDS 상승

		2/19일	2/18일	전일대비			2/19일	2/1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861.9	6,881.3	-0.28%	국제 금리 10y	미국	4.07%	4.08%	-2bp
	유럽	625.33	628.69	-0.53%		독일	2.74%	2.74%	+0bp
	중국	휴장	휴장	-		영국	4.37%	4.37%	-1bp
	일본	57,468	57,144	+0.57%	CDS 5y	한국	23bp	22bp	+1bp
	한국	5,677.3	휴장	+3.09%		중국	44bp	44bp	+0bp
	달러지수	97.82	97.70	+0.12%	위험 지표	EMBI+	-	259	-
유로화	1.1773	1.1783	-0.08%	VIX		20.23	19.62	+3.11%	
환율	엔화	155.01	154.81	-0.13%		WTI유	66.43	65.19	+1.90%
	위안화	휴장	휴장	-	원자재	구리	576.0	580.3	-0.74%
	원화	1,445.5	휴장	-0.04%		금	4,996.1	4,977.6	+0.3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美 트럼프, 이란과 합의 불발 시 나쁜 일 발생. 주간 신규실업급여는 감소 지속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좋은 대화도 이뤄지고 있다고 발언. 다만 양국은 의미 있는 수준의 합의에 도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bad things happen)’이라고 경고.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여부는 10일 안에 판가를 날 것이라고 부연
-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 고위급 간부들을 긴급 소집하면서 양국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으며, 미국의 군사 작전 시행 가능성이 90%에 이른다고 평가.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는 미국이 對이란 군사 작전을 시작하면, 이는 정밀 타격 작전이 아닌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
- WSJ는 미국이 `03년 이라크 공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고 보도. 이란의 아락치 외무장관은 양국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발언
- 한편, 미국의 2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는 20.6만건으로 전주 대비 2.3만건 감소. 1월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를 나타낸데 이어 실업자 변화를 가능할 수 있는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도 안정적 흐름을 지속. 이에 시장에서는 당분간 금리인하가 어렵다는 의견이 확산
- 작년 12월 무역수지는 70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25년 연간으로는 9015억달러 적자로 관세정책 이전과 거의 유사한 수준. 이는 관세인상에 따른 무역적자 축소 효과는 거의 없음을 시사. 1월 잠정주택판매지수는 전월비 0.8% 내려 전월(-7.4%) 대비 하락세 둔화되었으나 예상치(1.3%) 대비 저조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지역 연은 총재, 연준의 독립성 강조. 옵션 투자자들은 조기 금리인하 기대

- 미니애폴리스 연은의 카쉬카리 총재는 백악관의 해닛 국가경제위원장이 소비자가 관세 부담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뉴욕 연은 보고서를 비판한 것은 연준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주장.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금리 옵션 투자자의 포지션에서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에 베팅하는 비중이 증가. 이는 예상치를 하회한 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

■ 미국 블루아울캐피털, 일부 상품 환매를 중단. 환매 신청 급증 등에 기인

- 대체자산운용사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 Inc.)은 환매 급증을 이유로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형 펀드인 OBDC II의 분기별 환매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 '분기별 환매' 구조는 정기적 유동성을 제공하는 대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대출 자산을 보유한 펀드의 경우 투자 심리 변화에 취약

■ 유로존 2월 소비자신뢰, 전월비 개선. 영란은행 맨 위원은 금리인하에 신중

- 2월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는 -12.2를 기록, 전월(-12.4) 대비 소폭 개선. 이는 '24년 11월 이후 최고치. 다만 전문가들은 유로존 소비자신뢰가 여전히 장기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고 지적
- 영란은행 맨 위원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었으나,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못한다면서 금리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 현행 통화정책은 고용 및 물가 목표의 균형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

■ 일본 12월 기계수주, 2개월 만에 증가 전환. 호주 1월 실업률은 전월비 보합

- 일본의 작년 12월 기계수주는 전월비 19.1% 늘어나면서 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통상적으로 기계수주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로 인식.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증가하면서 산업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확대
- 한편, 호주 1월 실업률은 4.1%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로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 이번 발표 이후 호주 달러화 강세 및 국채금리 상승 등이 발생

■ IMF, 중국에 보조금 축소 권고. 위안화 가치는 16% 저평가 상태

- 중국 당국의 핵심 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GDP 대비 4% 수준인데, 이를 2%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고 권고. 또한 중국 위안화 가치는 경제 여건 대비 16% 저평가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저평가가 중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2/20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4/4분기 GDP 및 12월 PCE 물가지수, 2월 S&P 글로벌 종합 PMI
- ECB 라가르드 총재 발언,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결정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AI 기업의 높은 가치, 가격 경쟁 본격화 시 훼손될 소지 - Financial Times

(Is an AI price war about to begin?)

- 미국의 주요 AI 기업들은 전 세계 AI 관련 매출과 고수익 부문을 지배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가치는 글로벌 사용자들이 더 높은 비용 부담을 감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 이에 장외시장에서 오픈AI의 시가총액이 5천억달러로 평가되는 등 미국 AI 기업 가치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들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
-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AI 기업 Zhipu(시가총액 290억달러)는 AI 서비스를 매월 약 3달러(미국은 20달러 이상)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AI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 중국 AI 기업들의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한다면, 미국 AI 기업의 시장 지배력 약화 및 가치 재평가 등이 전개될 가능성

■ 이란의 對美 항전, 협상보다 분쟁 장기화가 유리하다는 판단에 기인 - Financial Times

(Why Iran is betting on war)

- 미국은 수일 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 이는 이란이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함정으로 인식하고,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데 기인. 특히, 이란은 미국의 요구에 동의할 경우 경제 제재 중단, 전쟁 위협 해소 등의 성과 없이 단순 무장해제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
- 이에 이란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외교적 협상보다는 미국과의 분쟁 장기화를 통해 향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판단. 또한 對美 항전으로 내부결속 강화도 가능. 다만 이란의 전쟁 확대는 정권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판일 소지

■ 미국 소비자, 인플레이션 둔화 불구 생활비 압박은 지속 - 블룸버그

(Inflation Is Down, But Americans Still Feel an Affordability Squee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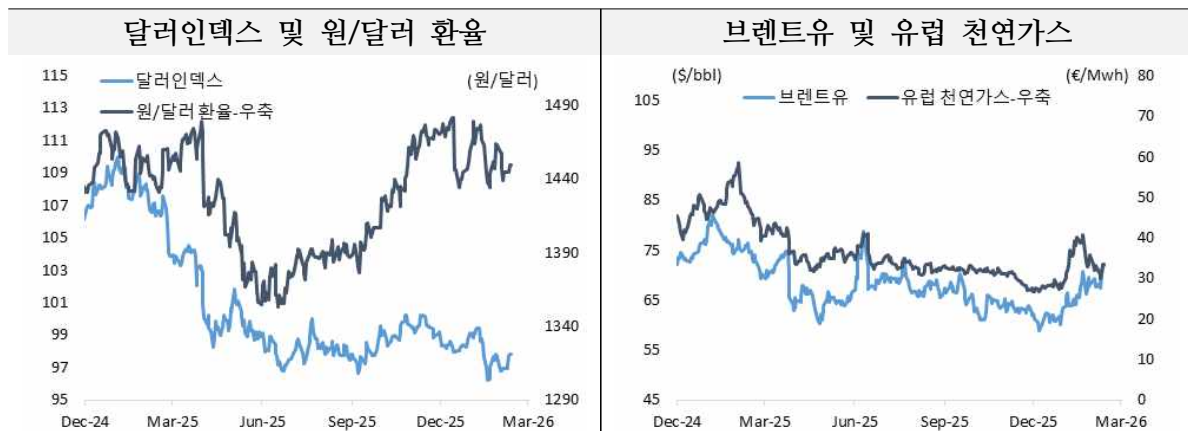
- '20년 이래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생활비 부담은 여전. 관세로 인한 가격 전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련 불안감이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 또한 식료품 등 필수재 품목의 가격상승률은 임금상승률 보다 높다는 점도 지출 부담을 증폭시키는 요인.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이 저하됐음을 시사
-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은 주요 쟁점으로 부각. 민주당은 다양한 관련 대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주택가격 부담 해결에 집중. 특히 공화당은 세금 환급 증액을 강조하지만,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취할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

- **미국 달러화 약세, 체제 변화가 아닌 금리 전망·성장 격차 환헤지 영향 - Financial Times**
(Dollar doldrums)
 - 최근 미국 경제 지표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달러화는 약세 흐름이 지속.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기존 달러화 중심 질서의 변화라고 해석. 그러나 금리 전망, 전반적인 경제 여건, 글로벌 투자자들의 환헤지 수요를 감안한다면, 최근의 달러화 움직임은 오히려 합리적인 현상
 - 시장에서는 점차 연준의 연내 3회 금리인하 기대를 반영. 또한 미국 경제는 여타 선진국 대비 압도적으로 강하거나 크게 약하지 않은 중간 수준인데, 이는 달러화 스마일 이론(미국 경제가 매우 좋거나 매우 나쁠 때 모두 달러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론)을 적용한다면 약세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
 - 트럼프 행정부의 불안정한 지정학 전략과 연준 독립성 압박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지만, 對美 자본유입은 여전히 강하고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다른 통화로 대체될 가능성은 제한적. 한편, 투자자들의 환헤지 확대는 점진적인 달러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
- **미국 증시의 종목별 불균형 심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금융위기 직전과 유사 - WSI**
(What to Make of This Very Weird Market)
- **사상 최저 수준인 미국계 펀드의 현금 비중, 향후 변동성 확대 신호일 가능성 - 블룸버그**
(Bullishness Remains High — Is Trouble Ahead?)
- **미국 정부, 이란과의 충돌 및 유가 상승 위험을 과소평가 - 블룸버그**
(America is too complacent about iran and oil prices)
- **중국의 부채 축소 등을 통한 건전성 개선 노력, 수요와 성장 회복의 걸림돌 - 블룸버그**
(China's Balance Sheet Recession Is Getting More Problematic)
- **중국의 무역 전략, 트럼프 관세정책 역이용을 통한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초점 - Reuters**
(How China plans to dominate global trade long after Tru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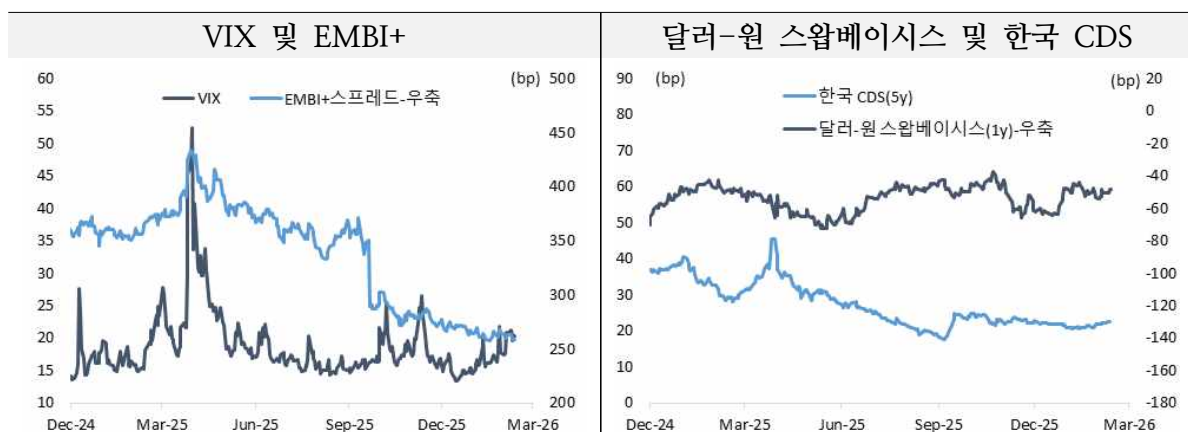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